

#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소식

The Korean Union of 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Newsletter



## 목 차

- 화학산업계에서 화학기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1 ..... 1
- 화학산업계에서 화학기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2 ..... 2
- 신입회원 소개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 3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 3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3
  - 한국화학연구소 ..... 4
  - 한국세라믹학회 ..... 5
- 제2차 산학심포지엄 소식 ..... 5
- 회의록 ..... 6
- 한국공업화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7
- 회원학회 소식 ..... 8
- 제2차 산학심포지엄 협찬업체 ..... 8

##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소식

제2권 제2호 (통권 제3권)  
 인쇄: 2000년 6월 25일  
 발행: 200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6-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03호)

전화: (02)3453-3781  
 팩스: (02)3453-3785

발행인: 손연수  
 편집인: 이범성

디자인·인쇄: 국동디자인(주)  
 전화: 2274-7800, 팩스: 2266-4427

## 화학산업계에서 화학기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1

### 학계와 산업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



**우** 리 나 라 화학 산업은 생산액이 46조원 규모로 국내 산업 총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화학산업 생산액에서도 4%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큰

규모의 산업입니다. 또한 전자정보소재, 생명공학, 환경산업 등 21세기 첨단산업들도 상당부분 화학산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 잠재 가치가 무궁무진한 고부가가치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중요한 화학산업에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학계가 '화학관련학회연합회'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 협력기반을 구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과거 수 백년의 변화과정이 이제는 일년으로 단축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화학산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화학산업이 인류생활의 필수품이라는 사실에 안주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류의 핵심과제가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생활과의 해결이었다면, 이제 인류의 미래는 '복지의 세기'로 인간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보다 편리한 생활을 향유하며 재해나 질병에 의한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산업의 발전 패러다임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복지의 세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의 보다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화학산업에서 산학 협력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Tool을 갖지 못하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장학금이나 연구비 지원과 같은 분산된 형태의 교류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금번 화학관련학회연합회의 설립으로 화학산업에서 업계와 학계가 협력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봅니다.

이제 업계에서도 우리 나라 화학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 하에 업계와 학계가 만나서 학계는 업계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 수 있고, 업계는 학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옛말처럼 지금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서로의 만남과 지속적인 교류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손연수 회장님과 대한화학회 진정일 회장님, 한국화학공학회 박원훈 회장님, 한국공업화학회 이범성 회장님, 한국고분자학회 김광웅 회장님, 그리고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김시중 전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련 여러분들께 연합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나라 화학산업의 기술발전과 산학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 성재갑

화학산업계에서 화학기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2

화학관련학회연합회의 역할



**지** 난해 7월 국내 화학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학회들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현재 크게 위축되어 있는 국내 화학산업의 진흥을 위한 산·학 협력의 2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가 새천년

이 시작되는 뜻깊은 해에 설립 첫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학산업은 작금의 침체된 분위기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인류생활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던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연구의 기반위에서 수요패턴의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이고 기능성이 있는 신물질의 창출과 성능개선 그리고 새로운 공정기술의 개발등 미래지향적인 제품과 기술개발이 중점 추진되어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이 상호보완적인 위치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기반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렇게 중요한 시

기에 화학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화학관련학회연합회의 역할과 활동에 큰 기대를 하면서 다음 사항을 특별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세부분야별 화학관련학회들의 회원가입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화학업종별 단체(협회, 조합등)와 연구기관의 특별회원 확충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연합회가 명실공히 화학산업계와 관련학회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가교 역할과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둘째, 위와 같은 협력의 기반위에서 우리 화학산업이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주요기간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의 제시와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전문인력의 양성 및 신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등 산·학·연이 함께 공동관심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동 위원회가 장기적으로는 국내 화학산업 총괄단체의 설립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합회의 출범 2주년과 함께 산업계는 물론, 교육, 연구분야등 화학관련 모든 분야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한 재도약의 분위기가 확산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회 장 이 복 영

KUCST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산·학·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화학산업진흥을 위한 화학기술인들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본 연합회의 뜻에 공감하여 여기에 동참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 2000년 상반기에 KUCST의 신입회원 단체는 다음과 같이 2개 연구소, 2개 협회, 1개 학회 등 5개 단체에 이르고 있다.

- |            |   |
|------------|---|
| 회원학회       |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이경희)                            |
| 특별회원 (연구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박호군)<br>한국화학연구소 (소장 김충섭)      |
| 특별회원 (산업계)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 성재갑)<br>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회장 이복영) |

본회에서는 이들 신입회원 단체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2면 3-4면에 걸쳐 소개 기사를 실는다.

신입회원소개

특별회원 소개 1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회장 성재갑)는 국내 석유화학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며 석유화학공업에 관한 정책 입안 및 수행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1974년에 설립되었고, 울산, 여천 및 대산 공단의 40여개 정유 및 유화 업체들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당 협회는 석유화학공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회원업체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석유화학공업의 합리화 계획 증진을 위한 사업, 석유화학공업의 생산성 향상 등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당 협회는 25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이적 경제발전에 견인력을 발휘한 석유화학공업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협회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및 가격동향, 석유화학 관련 신제품, 국내외 회의자료 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석유화학(격월간), 석유화학편람(년간)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사전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석유화학산업 2000” 영문홍보책자를 발간하였다.

당 협회는 석유화학산업이 국민생활의 의식주 해결에 필수 산업이라는 과거의 관념을 떨쳐버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특별회원 소개 2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정밀화학산업은 21세기 핵심산업인 정보통신, 반도체, 자동차, 환경산업 등의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이면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약품, 화장품 등 생명과학과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첨단산업이다.

특히 1980년대 세계화·개방화와 물질특허제도도입 등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밀화학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 1985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120여 회원으로 구성된 본회는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계를 대표하는 중추적 민간기구로서 성장하여 당해업종의 권익보호와 발전방향모색을 위하여 조사연구, 교육연수,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간행물 발간 등 고유사업과 지구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운용사업,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국내이행사업, 화학분야 기술 개발 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을 다각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습득 및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정보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국내화학제품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DB) 검색시스템을 구축, 관련기업의 홍보 및 거래알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무역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며, 화학벤처기업들의 신규공장설립 등의 애로해결을 위해 협동화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회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밀화학진흥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정부의 산업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3D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화학산업이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이미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본 진흥회는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을 연계시키는 교량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나감으로서 정밀화학산업발전은 물론, 회원사의 이익과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새천년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정밀화학진흥회는 명실상부하게 화학산업을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단체로 자리잡기 위하여 새로운 계획과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별회원 소개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박호준)은 1966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원 합의에 따라 국내 최초의 종합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한국의 경제개발과 공업현대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KIST의 연구조직은 재료연구부, 시스템연구부, 환경·공정연구부, 생체과학연구부 등 4개 연구부와 산하 전문그룹별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직원은 680여명 중 73%가 연구인력에 해당되며, 박

사학위 소지자는 330여명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원외에 인턴연구원, POST DOC 연구원, 외국방문연구원 등을 포함한 450여명과 300여명의 학원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재학생이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KIST는 설립 이래 포항종합제철 설립에 관한 경제성과 타당성 조사업무 등을 포함하여 비디오 테이프용 폴리에스터 필름 개발, 세계 최초의 고분자형 3세대 항생제와 공업용 인조다이아몬드, 광섬유 등의 연구 개발, 88서울올림픽 개최시의 참가선수들에 대한 도핑 테스트 및 올림픽경기의 종합전산시스템 구축 등 근대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



산화 기술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90년대 들어서는 고성능 리튬폴리머 전지개발, 신약물 전달체제 개발, 휴먼로봇 시스템개발 등 첨단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KIST는 그간 축적된 연구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 10위권의 일류연구소 진입이라는 목표하에 창조적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

의료복지기술, 정밀소재공정기술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KIST-2000"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성공리에 수행하였으며, "Neo-2010" 계획을 통해 인류의 난치병 극복 및 미래 에너지 개척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전략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수강산 21" 계획을 추진하여 이천만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KIST는 '91년부터 우수 대학들과 공동으로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여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성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우수 연구기관과 활발한 인력교류,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을 실시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특별회원 소개 4

####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소장 김충섭)는 생활필수품에서부터 산업용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인 화학공업과 관련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 그 성과 보급을 목적으로 1976년 설립되었다.

당 연구소는 국가차원의 미래지향적 첨단 원천기술, 산업계 당면 필요기술·경쟁력 제고기술 등의 연구기능과 함께 화학분석, 재료시험 등 고도기술을 요구하는 시험분석, 기술정보 분석 및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도·자문과 인력훈련 등의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점추진연구분야를 설정해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화학물질연구부는 스크리닝·안전성연구센터와의 협력하에 농약과 의약품의 신물질 합성을 통한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연구를 위한 국내 유일의 일관된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화학소재연구부는 전자, 항공우주 등 21세기 차세대 산업을 선도할 신기능 고분자·무기소재 합성과 특성평가에 관련된 핵심기술 연구를 중점 수행한다.

화학기술연구부는 21세기 인류의 3대 과제가 될 환경, 에너지, 복지문제의 화학적 해결을 목표로 화학촉매기술과

신공정기술분야 연구를 수행한다.

응용화학연구부에서는 정밀화학관련 중간원료와 기능성 화학물질의 고기능화 응용 및 제조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스크리닝·안전성연구센터는 신약개발 등과 관련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평가와 약효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외 분석실과 신뢰성평가센터 등도 세계수준의 화학분석기술과 신뢰성평가기술 등을 확립하여 화학물질 종합 시험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화학연구소는 설립 후 정부출연연구소로서는 최초로 선진국 일류기업에 첨단기술 특허실시권을 양도하는 등 최고의 기술료 수입과 국내 최다의 물질특허 보유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화학장치 산업기술 전공정개발에 성공



신입회원소개/제2차 산학심포지엄 소식

하는 등 우리 나라 화학공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추적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한국화학연구소는 지금까지 축적해온 연구개발능력을 바탕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대에는 세계정상 수준의 화학기술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발전한다는 야심적 장기 비전을 세우고 있다.

정회원 소개 5

한국세라믹학회

한국세라믹학회(회장 이경희박사)는 세라믹 또는 이에 관계되는 요업 분야의 연구자와 생산 및 관리직 관계자들이 모여 국내의 세라믹산업 및 이와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고자 1957년에 설립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세라믹 관련 단체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10번째로 큰 학술단체임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세라믹학회는 년 2회(봄, 가을) 정기 학술대회를 개



최하며, 지금까지 총 44회의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였고, 10개의 산하 부회들이 1년에 1회 이상의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세라믹학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학술진흥재단의 일부 재정지원을 받아 120면 분량의 국문학회지를 월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약 100면 분량의 영문학회지를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요업관련 기사를 다루는 세라미스트지를 100면 분량으로 연 6회 발간되고 있다.

본회는 1987년과 1991년에 미국요업학회 및 러시아요업학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최근 1998년에는 경주에서 300여명의 국내외 저명학자가 참석하여 The 3rd International Meeting of Pacific Rim Ceramic Society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폭넓은 국제적 학술활동을 주도하는 학회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산학심포지엄 소식

화학산업의 진흥을 위한 R&D와 교육

한국화학관련연합회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우리 나라 화학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구체적인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화학산업의 진흥을 위한 R&D와 교육>이라는 주제하에 제2차 산학심포지엄을 지난 6월 9일(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손연수 회장의 개회사, KIST 박호군 원장의 환영사,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이복영 회장의 축사로 이어진 개회식을 마치고, 4가지 소주제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김철두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이 '21세기 화학산업의 정책방향', 이부섭 (주)동진썬미켈 사장이 '미래화학산업을 위한 중소기업의 R/D-동진썬미켈의 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여중기 LG화학기술연구원 원장이 '새로운 도전-R&D를 통한 Restructuring', 김충섭 한국화학연구소 소장이 '21세기 화학산업과 화학교육'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각 강연 이후에는 인하대학교 이본수 교수, 한국화학연구소 김윤수 박사, 삼성종합기술원 양덕주 박사, 고려대학교 정봉영 교수에 의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시중 연합회 고문, 이복영 정밀화학공업진흥회 회장, 정수철 요업기술원 원장, 강연자, 토론자를 비롯한 본 연합회 임원, 회원학회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으며, 특히 연합회 김광웅부회장, 연합회 김영하 기획·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은 본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좌장으로 수고하였다.

주식회사 LG화학, 대정화금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진썬미켈의 후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박호군 원장)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회 장 단**

**제 3 회**

일 시 : 2000년 4월 12일(수) 17:00~18:30  
 장 소 : 전자·광감응분자센터 사무실(고려대)  
 참석자 : 손연수 이범성 진정일 박원훈 김광웅  
 5명 전원 참석

- 1-1. 6월 심포지엄 연사는 학연 대표 김충섭 소장(화학연), 대기업 대표 여중기 원장(LG화학), 중소기업 대표 이부섭 사장(동진세미켄) 정부대표 오영교 차관(산자부)을 초빙키로 함. 1차 지명연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차후 논의키로 하며, 정부측연사는 손연수 회장이, 학계·산업계 연사는 김광웅 부회장이 접촉토록 함.
- 1-2. 심포지엄 예상 경비 600백만원 중 300백만원은 광고비로 충당키로 하고 광고 게재 후원사를 섭외키로 함.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회원학회들이 분담하여 한 회사씩 맡기로 함.
- 1-3. 금년도 제2차 11월 심포지엄은 산학협력전문위원회(박원훈 위원장)에서 주관하되 다학제적 심포지엄 타이틀을 정하여 산업계와 학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함.
2. 신규 정회원 영입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며, 특별회원 영입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및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회장단과 합의된 바, 진정일 부회장이 회원가입 공문과 입회원서를 수정 보완하여 금주 내로 보내고 KIST, KRICT의 특별회원 영입은 손연수 회장에게 일임키로 함.
3. 산학협력위원회(가칭) 설치는 위의 협회나 연구소가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후 추진키로 하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2중 구조보다는 단일위원회로 구성키로 함. 위원회는 산업계 대표인 각 협회에서 회장, 부회장 2인, 연합회 회장단 5명, 연구계 대표로 KIST 원장 및 한국화학연구소 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잠정적 내부 안을 결정하고, 최종적인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구성은 특별회원 가입이 완료된 후에 이들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제 4 회**

일 시 : 2000년 5월 30일(화) 17:00~18:30  
 장 소 : 전자·광감응분자센터 사무실(고려대)  
 참석자 : 손연수 박원훈 이범성 진정일 김영하(김광웅 대리)  
 5명 전원 참석

1. 연합회 술어집 편찬사업과 관련하여 손연수 회장이 저작권 전문 변리사(박장원 특허사무소 이승일 변리사)에게 문의한 결과 여러 회원학회의 술어집을 취합, 수정, 보완할 경우 새로운 저작권이 형성되며 각 학회의 술어집 저작권이나 판권과는 무관하다는 배경설명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함.
- 1-1. 연합회 술어위원회 위원장은 손연수 회장이 맡기로 확정하고 실무급 위원을 각 학회로부터 보강키로 함.
- 1-2. 연합회 술어집의 저작권은 연합회와 회원학회가 공동소유키로 하고, 모든 비용과 손익도 공동분담키로 함.
- 1-3. 술어집은 2001년 말까지 발간하고 회원학회에서 술어집을 취

근에 발간한 경우 적절한 상응조치를 해주기로 함.

- 1-4. 필요한 경우, 학회별로 추가 보완 작업을 거친 후 연합회 술어위원회에서 취합하여 연합회 술어집에 추가 보완키로 함.
2. 연합회 소식지 2권 2호(통권 3권)에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과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장의 "화학산업계와 연합회간의 협력 방향"에 대한 기사, 한국공업화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내용, 제2차 산학심포지엄 내용을 게재키로 함.
- 3-1. 특별회원과 정회원 모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되 B4 크기로 액자에 넣어서 전달하고 문안은 진정일 총무부회장에게 일임키로 함.
- 3-2. 산학협력특별위원회(가칭)는 특별회원들의 가입이 완료된 후에 구성하고 화학산업을 대표하는 기구가 생길 때까지는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
4. 화학관련학회 역사 편찬사업은 안동혁 박사님 세대를 중심으로 편찬하되 손연수 회장이 전민제 고문계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확실하게 상의한 후 진정일 부회장이 맡아 편찬사업단을 구성키로 함.
5. 제2차 산학심포지엄 준비는 김영하 기획·홍보전문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아래의 사항을 결정하였음.
- 5-1. 강연자료집은 800부 인쇄하여 산업체와 연구소에만 홍보차원에서 배부키로 함
- 5-2. 강사료: 300,000원, 지정토론자 100,000원
- 5-3. 좌 장: 김광웅 김영하
- 5-4. 지정토론자를 각 강연에 한명씩 지정하되 일단 2명의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키로 함. 강연1: 이본수 이철태, 강연2: 김운수 이영길, 강연3: 양덕주 김기협, 강연4: 정봉영 최진호
- 5-5. 리셉션: 20,000원/ 50명분/ 가든파티
- 5-6. 심포지엄 홍보는 손연수 회장이 KIST 홍보실에 부탁키로 함.
- 6-1. 신규 회원학회의 가입에 따른 정관개정을 차기 회장단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6-2. KUCST 관련소식이 각 회원학회 소식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각 회원학회 회장들이 협조하고 KUCST와 회원학회간에 중요 기사를 교환 게재토록 조치하기로 함.

**제 5 회**

일 시 : 2000년 6월 29일(목) 17:00~18:30  
 장 소 : 대한화학회 회의실  
 참석자 : 손연수 김광웅 이경희 이범성 진정일 5명 참석

1. 한국세라믹학회 이경희회장과 상견례
2. 제2차 산학심포지엄 결과보고
3. 산학협력특별위원회(가칭)의 명칭을 "화학기술·산업협력위원회"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위원회와 상설기구(분과)를 설치키로 하였음.  
 위원회: 산업계 2개 협회장, 연구계 2개 연구원(소)장, 연합회 회장단으로 구성. 첫회의를 8월중순경 개회키로 함.  
 분 과: R/D, 기획정책, 환경, 교육, 홍보위원회등을 설치
4. 연합회 소식지 2권 2호(6월호) 발간: 8면 / 7월 첫주에 발간 완료키로 함.
5. 화학관련학회 역사편찬사업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편찬위원

외의록/한국공업화학회 창립10주년 기념행사

회를 설치키로 하고 명칭을 “한국화학사편찬위원회”로 정하며 8월중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키로 함. 동 위원회는 전민제 고문, 남기동 요업총협회장, 김순경 박사, 진정일부회장 등 관련인사로 구성키로 함.

- 61. 회원증 7월중 제작 배부
- 62. 화학회관 건립과 관련하여는 전민제 고문의 의사를 타진 후 논의키로 함.
- 63. 현 한국화학회관의 영문 명칭을 “The Korea Chemistry Center”로 정함.
- 64. 현 한국화학회관 활용(3층)은 손연수 회장이 전민제 고문과의 연합회 찬조금 상향조정을 협의한 후 구체적 활용방안을 모색키로 함.

**제1차 연합회 술어위원회**

일 시 : 2000. 4. 28(금) 17:00-18:30

장 소 : 대한화학회 회의실

참석자 : 손연수(회장)

- 김창홍(대한화학회 술어위원장)
- 김재진(한국화학공학회 술어제정위원장)
- 도준호(한국고분자학회 용어제정위원장)

이윤식(한국공업화학회 술어제정위원장)

1. 술어 통합 작업의 목적 및 필요성 : 화학 · 기술 전 분야에 대한 술어를 통합 정비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화학관련 학회 회원간의 이해증진과 교류의 폭을 늘리고 산 · 학 · 연 협력을 촉진하므로써 국내 화학공업발전에 기여한다.
2. 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술어위원회”로 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잠정적으로 위원장 1인과 각 회원학회 술어위원회 위원장과 실무위원 1인씩 총 9인으로 하되 필요하면 각 회원학회가 1인씩 추가하기로 한다.
3. 작업 범위는 현재 회원학회들이 제정한 술어집을 통합, 정비하는 것으로 하되 새로운 용어도 추가할 수 있다. 일단 기존 술어집(대한화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을 통합 나열한 후 정비하되 도준호 박사(한국고분자학회)가 기존 술어집을 통합 정리하기로 한다.
4. 각 회원학회 술어위원회 위원장들은 해당 학회에서 술어 통합작업에 관련된 사항(판권, 인쇄 관련 사항 등)을 토의하여 반영하며, 연합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동 사항을 토의하기로 한다.
5. 제2차 연합회 술어위원회는 기존 술어집 통합 작업이 완성된 후 소집하기로 한다.

**한국공업화학회 창립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새로운 밀레니엄을 시작하는 2000년, 한국공업화학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학술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부산 · 경남지부의 지부 심포지엄(4월 28일, 부경대)을 신호탄으로 광주 · 전남지부의 “광소재와 화학산업발전(5월 4일, 전남대), 대전 · 충남지부의 “21세기 기능성 재료”(5월 9일, 화학연구소) 심포지엄으로 서막을 열고 서울산업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난 5월 12-13일 양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된 특별심포지엄, 4개 전문 심포지엄 및 연구논문 발표회로써 10주년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한국공업화학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업화학분야의 확고한 학문적 위상정립과 지식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개최된 특별심포지엄은 『**지식환경변화와 화학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의 대주제하에 “공학과 기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조동성,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장)”, “지식경영과 공학의 미래(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장)”, “화학산업과 벤처의 전망(김대기,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장)”, “화학산업과 미래기술(이부섭, 동진씨미켄사장)”에 대한 열띤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학회회원 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양일간에 걸쳐 병렬형으로 개최된 4개 전문심포지엄은 나노복합재료, 나노촉매, 나노패터닝, 나노탄소섬유/



튜브 등 나노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정리한 나노기술심포지엄, 에멀전 수지 합성 기술, 수계 우레탄 및 알키드 코팅제 제조기술 및 전착도료기술 등 환경친화형 수계도료용 수지의 합성기술을 조망한 도료 · 도장기술심포지엄, 나노입자 제조, 전도성 고분자개발, 기능성 화장품개발과 관련된 계면활성제의 연구 및 활용기술을 체계화시킨 정밀화학심포지엄과 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 배기가스 처리기술을 제정립한 환경기술심포지엄으로서 21세기 미래기술을 준비하는 산 · 학 · 연 협동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화학회**

대한화학회는 제85회(2000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1,700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가운데 4월 21~22일 양일간 국민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학술발표회에서는 기념강연 3, 초청강연 6, 특별강연 2, 심포지엄 78(10개 분과회), 연구논문 879편(구두 58, 포스터 821편) 등 총 96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학술상 서세원(서울대), 우수논문상 유 룡(KAIST), 학술진보상 김재녕(전남대)·이승희(경성대), 교육진보상 한인옥(경기여고)에 대한 시상이었다.

**=제86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 일시 및 장소: 2000년 10월 20~21일 (금·토) 경상대학교
- 행사: 2000 추계총회, 학술발표회 및 기기전시회
- 초록마감: 2000년 8월 9일 도착분에 한함.
- 예비등록마감: 2000년 9월 20일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고분자학회는 2000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를 2000년 4월 14~15일 양일간 경희대(용인캠퍼스)에서 9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논문발표회에서는 심포지엄강연 32편, 초청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구두발표 82편 및 포스터발표 412편 등 총 52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학술상 박수진(화학연구소)과 기술상 배효근(삼화페인트)에 대한 시상이었으며, 1999년도 회장단 및 이사진에 대한 공로패 시상이 함께 있었다.

**한국화학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는 2000년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한양대학교(안산캠퍼스)에서 4월 21~22일 양일간 972명의 회원이 등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초청강연 1편, 공동심포지엄 8편, 구두발표 131편, 포스터발표 436편 등 총 576편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화학공회는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2000 여름특별심포지엄(7. 26~28, 제주 그랜드호텔)', '공정시스템부문 위원회 공개강좌(8. 21~24, KAIST 화공과)', '중류기술 공개강좌(8. 28~31, KAIST 응용공학동)', '분체공학 워크샵(8. 18~19, 세명대학교)', '생물화공심포지엄(8. 18, 경주 교육문화회관)', '생물화공경시대회(9. 23, KAIST)', '대기탈질 기술 심포지엄(8. 24, 포항공대)', '열역학 심포지엄(7. 7, 충남대)', 'CVD 심포지엄(8. 4, 서울대)', '촉매부문위원회 연도회(6. 29~7. 1, 보광 피닉스파크)' 등을 활기차게 기획하고 있다.

**한국세라믹학회**

한국세라믹학회는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를 4월 21일~22일 양일간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명지대학교(용인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이때 특별강연 5편, 구두발표 135편, 포스터발표 94편 등 총 234편의 연구발표가 있었으며, 전자재료와 구조재료부회에서 각각 특별심포지엄을 가진바 있다. 또한 공로상 오근호(한양대)와 학술상 오재희(인하대)에 대한 시상이었으며, 추계 학술대회는 10월 20~21일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2차 산학심포지엄 협찬업체**



**LG화학**

본 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전화 : (02)3773-1114  
홈페이지 : www.lgchem.co.kr  
기술연구원 :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1  
대표전화 : (042)866-2114  
홈페이지 : www.md.lgchem.co.kr/doc/intro.asp



국내 최대의 시약전문제조업체  
**대정화금(주)**

본 사 : 서울 종로구 묘동 162-1  
전 화 : (02)764-1551~5 FAX: (02)745-8855  
홈페이지 : www.daejungchem.co.kr  
강남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6-5  
전 화 : (02)588-1661~6 FAX: (02)588-1800



주식회사 동진세미켄

본사·인천공장: 인천 서구 가좌동 472-2  
전 화 : (032)578-5091~4  
FAX : (032)578-7226  
서울사무소: 서울 마포구 동교동 146-8  
전 화 : (02)325-9451~8 FAX: (02)325-9459  
홈페이지 : www.dongjin.com